

# 『어우야담』의 서사방식과 초기 야담집으로서의 특성

신익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교수, 한국한문학 전공  
cloudway@aks.ac.kr

- I. 머리말
- II. 사실성을 넘어선 문학적 진실성의 추구
- III. 『어우야담』의 초기 야담집으로서의 특성
- IV. 맺음말

## I. 머리말

『어우야담』에는 시화와 고증잡록류의 기록들, 인물의 일화 및 귀신담 등 다채로운 제재의 이야기가 다양한 서사적 화폭 속에 담겨져 있다. 이야기 제재의 다채로움과 서사방식의 다양성은 『어우야담』이 필기문학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다수의 패설적 이야기가 혼효되어 있는 데서 연유하는 것이다.<sup>1)</sup> 한편 ‘야담’이란 명칭이 최초로 사용되고 있는 『어우야담』은 문학사적으로 필기문학의 전통 속에서 야담 양식을 창출한 최초의 야담집으로 평가받고 있다. 『어우야담』에는 필기·패설·야담의 세 가지 서사양식이 뒤섞여 있는 바, 초기 야담집으로서 『어우야담』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양식적 특성을 자세히 따져볼 필요를 느끼게 된다.

필기·패설·야담, 이 세 가지 서사양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별될 수 있는 것일까? 논자에 따라 미묘한 관점의 차이가 없지는 않지만<sup>2)</sup>, 대략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필기는 사대부의 생활정감을 바탕으로 해서 관심사를 자유롭게 서술하는 서사양식으로 사실성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비해 패설은 민중의 생활정감을 바탕으로 민간에 유전되는 이야기로 대부분 흥미성을 추구한다. 한편 야담은 필기잡록의

- 
- 1) 임형택은 『용재총화』와 『어우야담』의 성격을 “사대부적 생활의식을 내용으로 한 필기와 민간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패설이 혼효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임형택, 「이조전기의 사대부문학」, 『한국문학사의 시각』(창작과비평사, 1984), 359-418쪽. 이러한 성격 파악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필자 또한 이러한 입장에서 유몽인의 창작 정신과 『어우야담』의 서사방식의 특징을 살펴본 바 있다. 신익철, 「『어우야담』의 창작 정신과 서사방식」, 『고전문학연구』 12집(1997), 251-280쪽. 이 글에서 필자는 필기의 사실성과 야담의 허구성을 적절하게 교직한 사례를 여타 필기잡록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어우야담』이 지닌 초기 야담집으로서의 특성을 해명해보고자 한다.
  - 2) 필기·패설·야담에 대한 연구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 중 이 세 양식의 관계에 주목한 주요 연구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김상조, 「필기·패설·야담」, 『야담문학연구의 현 단계』 1(보고사, 2001); 신상필, 「필기의 서사화 양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4); 임완혁, 「조선전기 필기의 전통과 패설」, 『대동한문학』 24집(2006); 임완혁, 「필기에서 사실의 의미」, 『동방한문학』 29집(동방한문학회, 2009); 김준형, 「야담의 문학적 전통과 독자적 갈래로의 변천」, 『고소설연구』 12(한국고소설학회, 2001); 김준형, 「15-16세기 서사문학사에서 갈래간 넘나들의 양상과 그 의미 - 필기·패설·전기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24호(민족문학사학회, 2004); 김준형, 「사실의 기록과 야담의 진실성」, 『동방한문학』 39집(동방한문학회, 2009). 야담과 필기, 패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시는 이강옥의 「야담의 갈래」, 『한국야담연구』(돌베개, 2006), 13-68쪽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전통 속에서 조선후기의 특수한 역사 상황을 반영해서 출현한 서사양식이다. 야담은 필기의 사실성에 비해서는 허구성이 강하며, 패설의 흥미성에 비해서는 문학적 진실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필기가 사대부 문인의 생활정감을 반영한 것이라면 패설과 야담은 민중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친연성이 있다. 야담의 성립 요건으로 언급한 ‘조선후기의 특수한 역사 상황’이란 곧 조선후기 일련의 사회변동에 의해 민중의식이 성장하고, 이야기꾼의 활동과 더불어 이야기가 널리 구연되는 창작 배경이 형성되었으며<sup>3)</sup>, 사대부 계층의 분화에 따라 기록자인 양반층의 의식이 민중적 세계관을 활발히 수용하고, 때로는 이에 견인된 측면도 있음을 거론할 수 있다. 이러한 일면의 변모된 상황 속에서 야담은 필기나 패설에 비해 문학적 허구성이 강화되고 이야기의 진실성을 추구하는 문학적 변모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필이면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이르러 이러한 문학적 변모가 가능했던 동인은 무엇일까? 유몽인이 활동했던 시기가 임진왜란이라는 대전란의 격변기로 사회변동이 극심했던 시기이기도 하거니와, 유몽인 자신의 독특한 문학관이 작용한 점 또한 경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유몽인은 『어우야담』을 저술한 소감을 읊은 시에서 자신의 문학적 지향을, 『춘추』의 정신을 『장자』적 기법으로 기술하고자 했음을 말한 바 있다.<sup>4)</sup> 이는 유몽인이 견문을 기록함에 있어서 매우 폭넓은 태도를 지녔음을 말해준다. 유몽인은 실제의 사실을 직서하지 않고 『장자』의 우연적 수법으로 표현하고자 했기에 이야기의 사실성보다는 문학적 진실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가능했으며, 이에 따라 문학적 허구 또한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우야담』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과 부정적 평이 공존하고 있는데, 부정적 평이 대부분 사실의 부정확함을 지적한 데 비해 긍정적 평은 문장의 기이함을 높이

3) 임형택이 「18·19세기 이야기꾼과 소설의 발달」, 『한국학논집』 2집(계명대, 1975), 293-298쪽; 「한문단편 형성과정에서의 강담사」, 『한국소설담구』(일조각, 1978) 274-278쪽을 통해 이 점을 구체적으로 해명한 바 있다.

4) 「詠懷題於野譚」 “三年京兆宦情疎，清夢長遊水竹居。 神笏本非莊氏物，春秋焉繼孔子書。 孤帆踔海知無恙，八翼凌天總是虛。 付與癡兒公事了，玉堂金馬亦吾餘。” 『어우집』(경문사 영인본) 권2, 52쪽. 이 시의 함연에서 유몽인은 자신의 본색을 장자에 견주고 공자의 춘추직필(春秋直筆)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곧 장자식 우언(寓言)의 방식으로 현실을 풍자 비판함이 『어우야담』의 저술 의도임을 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필자의 앞의 논문 252-256쪽 참고.

평가하고 있는 점 또한 이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다.<sup>5)</sup> 곧 필기적 사실성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야담적 허구성(진실성)을 중시하느냐는 관점의 차이가 『어우야담』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낳았을 것으로 본다.

이 글에서는 먼저 『어우야담』이 필기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어떻게 야담으로의 변모를 성취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작자가 견문한 사실을 기술함에 있어 어떠한 문학적 변용을 추구했는가를 작품의 서사방식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유몽인은 자신이 견문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김에 있어 사실을 사실 그대로 직서하지 않고 일정한 주제의식하에 문학적 변용—예컨대 일정한 의도하에 사실을 재배치하거나, 문학적 수사나 허구를 도입하여 사실이 담고 있는 진실성을 강조하는 방식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이 담고 있는 진실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몇몇 작품을 대상으로 역사 기록 및 여타 필기잡록의 기록과 대비하여 『어우야담』의 서사방식이 어떠한 차이를 지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는 역사적 사실성과 문학적 진실성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이 될 것인데, 필기의 사실성과 야담의 진실성 중 어느 면을 중시하였는가 하는 점을 비교의 잣대로 삼아 논의하고자 한다.<sup>6)</sup> 아울러 야담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어우야담』이 지닌 초기 야담집으로서의 특성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 II. 사실성을 넘어선 문학적 진실성의 추구

『어우야담』에는 한 편의 이야기 속에 다양한 서사체가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서사가 전개되는 것이 상당수 있다. 이는 실재했던 사실을 그대로 직서하기보다는 그 속에 우의와 풍자를 가탁하여 문학적으로 변용하고자 하는 유몽인의 문학관<sup>7)</sup>과 관련된다. 445화 「정원의 사치」를

5) 장유와 이덕무는 『어우야담』을 부정적으로 평하며 사실의 부정확함과 표현의 비속함을 그 이유로 들고 있으며, 성여학과 이규상은 기이한 구상과 문장의 기상천외함을 높이 평가하여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세한 것은 필자의 앞의 논문 256-259쪽 참고.

6) 김준형의 「사실의 기록과 야담의 진실성」(『동방한문학』 39집, 동방한문화회, 2009)과 임완혁의 「필기에서 사실의 의미」(『대동한문학』 24집, 2006)는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진실의 관점에서 조선 후기 필기와 야담의 관련성 및 차이를 해명한 논문인데, 본고에서 논지를 전개함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얻었음을 밝혀둔다.

통해 이 점을 검토해보기로 한다.<sup>8)</sup> 이야기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쌍문리에 사는 수재 윤희평은 수석을 좋아해 정원에 화려한 가산(假山)을 만들었는데, 장안의 사대부들이 많이 방문하여 즐겼다.

② 친구 성택선이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집에 있는 괴석을 자랑하며 주겠다고 하였다.

③ 윤희평이 기뻐하며 종을 시켜 성택선의 집으로 보내자, 성택선이 웃으며 남산 잠두봉이 내 집의 괴석이라며 가져가라 했다. 종은 맥이 빠진 채 빈손으로 돌아왔다.

④ 유사 김두남이 성택선의 정원에 있는 가산을 보러 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를 풍자하는 시를 지었다. 이 시가 장안에 널리 유행하자 윤희평이 한탄했다.

⑤ 이산해가 이를 듣고 시는 좋는데 어조가 좋지 못하니, 급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두남은 과연 끝내 급제하지 못했다.

⑥ 내가 중국에 갔을 때 이름난 정원을 많이 보았는데, 그 화려함이 비할 바가 없었다. 이들은 모두 완물상지하는 것으로 윤희평의 행위는 가소로운 일이다.<sup>9)</sup>

이 이야기는 그 성격에 따라 ①, ②, ③ / ④, ⑤ / ⑥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①, ②, ③은 윤희평이 정원을 인공적으로 꾸미는 것을 좋아했으며 친구 성택선이 이를 조롱한 사실을 기술하였다. 남산 잠두봉을 자신의 괴석이라며 가져가라고 한 성택선의 행위는 유쾌한 웃음을 유발하는 일화이다. ④, ⑤는 이른바 시화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윤희평의 정원을 볼 수 없었던 김두남이 이를 풍자하는 시를 지어 유행하고, 이 시의 기상을 간파한 이산해는 김두남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할 것을 예언하고 이것이 적중한 사실을 말하였다. ⑥은 작자의 체험을 기술한 것으로 평결 부분에 해당한다. 중국 사행 시 자신의 경험을 기술하고 인공적으로 가산을 조성하는 것은 완물상지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말했다. 「정원의 사치」는 사대부 일화, 시화, 평결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각 부분의 서사방식은 서로 다른 지향을 보인다.<sup>10)</sup>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 실재하던 사건에 근거했으며,

7)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유몽인의 문학관과 시문의 표현수법의 특징」(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8-44쪽 참고.

8) 이 글에서 인용하는 『어우야담』은 신익철·이형대·조용희·노영미 공역, 『어우야담』(돌베개, 2006)을 텍스트로 했다. 이야기의 제목과 화수 구분 또한 이에 의거한 것이며, 앞으로 인용하는 원문은 이 책의 쪽수만을 표기하기로 한다.

9) 『어우야담』, 687-688쪽.

10) 이 이야기는 『어우야담』의 이본에 따라 내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만종재본』 447화에는 ①에서 ⑤까지의 내용이 실려 있고, 작자의 평결에 해당하는 ⑥이 빠져 있다. 『청구패설본』 253화와 『일사본』 地 90화에는 ①에서 ④까지의 내용만

그것을 별다른 문학적 수사—과장이나 세부묘사 및 허구적 개입 등—없이 사실에 근거해서 기술했다는 점에서 필기로 볼 수 있는 이야기이다. 이야기의 성격 또한 사대부 사회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정원을 꾸미는 일과 그와 결부된 시화를 다루었다. 요컨대 인공적으로 정원을 꾸미는 세태를 두고 사대부의 사랑방에서 회자되었음직한 이야기를 사실에 입각해 충실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108화 「불교에 몸을 바친 이예순」은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을 사실에 입각해 기술하였지만 그 서사적 지향은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그것은 사건 자체가 심각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작자는 이 점을 중시해 사실이 품고 있는 진실성을 문제 삼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개요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① 나의 친구 이귀의 딸 이예순은 김자겸에게 시집갔다.

② 김자겸 내외는 김자겸의 친구 서얼 오연관과 함께 불도에 빠져, 거처와 음식 잡자리까지 함께 하며 도우로 지냈다.

③ 김자겸은 병으로 죽으면서 처자를 오연관에게 부탁하였다. 임종 시 남긴 김자겸의 계승을 소개함.(생사의 이치가 한가지이니 진상眞常으로 이치를 삼으라는 내용.)

④ 오연관은 이예순의 집을 수시로 출입하며 이예순에게 불가의 책을 가르쳐주었으며, 이예순은 생불(生佛)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⑤ 이예순은 출가하여 오연관을 따라 안음 덕유산으로 가서 움막을 짓고 수행하였다.

⑥ 안음현에서 종적을 수상히 여겨 감옥에 가두고 감사에게 보고하였는데, 역육이 끝나지 않은 때라 한양으로 압송되어 대궐에서 국문을 받게 되었다.

⑦ 오연관은 심문을 받다 죽고, 이예순은 감옥에 갇혔다. 이예순은 남동생에게 절구 한 수를 지어주었는데, 감옥에 가두어도 나의 원유(遠遊)를 금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⑧ 이예순이 공초에서 한 말을 3차에 걸쳐 소개함. 그 내용은 (가) 어릴 적부터

---

실려 있고 ⑤와 ⑥이 빠져 있다. 아마도 시참적 성격의 이 이야기가 앞의 이야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생략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야승본』 149화에는 ①에서 ④까지와 ⑥이 실려 있는데, 이 중 ⑥은 상당히 축약되어 있다. ⑤는 같은 이유에서 생략했을 것이고, ⑥의 장황한 서술은 이야기에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 축약해서 실었을 것이다. 『가람본』 19화에는 ①에서 ③까지의 내용만 실려 있어 사대부 일화에 해당하는 부분만 독립시켜놓았다. 전체 기사가 다 실린 것은 『이수봉본』 7화가 유일하다. 이는 『어우야담』이 후대에 전승되면서 대부분의 이본이 필기적 내용을 많이 생략하고 있는 데 비해, 『이수봉본』은 『어우야담』의 원본을 가장 충실히 따르며 필기적 내용의 기술을 충실히 전제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어우야담』 이본의 성격에 대해서는 신익철·이형대, 「어우야담의 비판적 정본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29집(2002); 노영미, 「『於于野譚』 研究: 이본 고찰과 서사적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2) 참고.

문자(한문을 말함)를 알았고 세사에 관심이 없었으며, 결혼해서도 불도에 정진한. (나) 문벌가의 부녀자들이 출가해서 수도하는 것은 고래로부터의 전통인. (다) 유불도 삼교의 이치를 논하고, 여성의 몸으로는 치군택민(致君澤民) 할 길이 없어 불도에 입문하였으며, 죽더라도 여한이 없다는 것이다.<sup>11)</sup>

이 이야기는 1614년(광해군 6)에 일어났던 옥사에 근거해서 기술된 것이다. 양반 사족인 오연관과 이예순이 덕유산에서 움막을 짓고 함께 생활하다가 붙잡힌 이 사건은 당시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 무엇보다 이예순이 서인 세력으로 이이첨(李爾瞻)과 대립하고 있었던 이귀(李貴)의 딸이었기에, 대북파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광해군일기』 권81 1614년 8월 10일 기사에는 광해군이 이들을 친국한 사실과 함께 이들의 공초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다. 광해군이 이들을 친국까지 하게 된 것은 당시 이들이 박치의(朴致毅) 일당으로 의심받았기 때문이다.<sup>12)</sup> 이 중 이예순의 공초는 『어우야담』에 실린 내용과 상당히 흡사하다. 『어우야담』이 실제의 사실을 기술하면서 문학적으로 어떻게 변용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기에 다소 길지만 실록의 내용을 인용해본다.

영일(英一)이 공초하기를,

“소녀의 이름은 영일이 아니고 여순(女順)인데, 전 부사 이귀(李貴)의 딸이고 고유학(幼學) 김자겸의 아내입니다. 6, 7세 때부터 조금 문자를 알았으나 세상에는 마음이 없었고, 열다섯 살에 시집을 갔으나 역시 부부 생활과 아이 낳은 일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극한 불도에 마음을 두어 8, 9년간 공력을 쌓았더니 터득한 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겸도 뜻과 기상이 범상하지 않아 일찍이 선학(禪學)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아내의 도로써 대하지 않았고, 또 오연관과 도우(道友)를 삼았습니다. 일찍이 말하기를 ‘나는 그대와 같은 아내가 있고 오연관과 같은 벗이 있으니 일생의 행복이다.’ 하였습니다. 세 사람이 마치 술밭처럼 대하고 앉아서 종일 불도를 이야기하였는데 어떤 때는 밤이 으스스하도록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자겸은 무신년

11) 『어우야담』, 206-210쪽.

12) 『광해군일기』 6년 8월 19일조 기사에 의하면, 오연관과 이예순은 박치의(朴致毅)가 아닌가 하여 잡힌 것으로 나와 있다. 박치의는 강변칠우(江邊七友)의 한 사람인데, 강변칠우는 서자로서 관리등용의 길이 막혀 있음에 불만을 품고 죽림칠우(竹林七友)를 자처하며 여주에서 시주(詩酒)로 교유하였다. 이들은 모두 명문가의 서자인데, 광해군 즉위 초년에 연명상소하여 서자도 관리에 임용될 수 있도록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1612년(광해군 4) 강변칠우는 조령에서 은상(銀商)을 죽이고 은 수백 냥을 약탈하였는데, 이듬해 모두 체포되었으나 박치의 혼자 도주하여 행방을 감추었다. 조경남의 『속잡록』을 보면 당시 박치의를 체포하는 자에게는 양반의 경우 호조판서 2품직을 제수하고, 친인은 무명 이백 동을 상으로 준다는 영이 팔도에 내려진 상황이었다.

(1608, 선조 41)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일 죽을 것이다.'고 하였는데 정말 다음 날 죽었습니다. 임종하면서 입으로 계송(偶頌) 몇 구절을 불러주고, 이어 오에게 말하기를 '내 아내가 있으니 나는 죽지 않았다. 그대는 속세의 말을 혐의삼지 말고 모쪼록 불도를 위하여 오늘날처럼 서로 방문하게.' 하니, 오가 허락하였습니다. 그 뒤 때때로 와서 만나 불도를 이야기하며 학문을 강론하였는데 오래도록 쇠하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오대산(五臺山)에 비구니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었는데, 지난 4월에 오연관이 산을 유람하기 위하여 떠난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따라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시어머니와 부모에게 편지를 남겨 작별을 고하고 노비를 거느리고 길을 떠나 덕유산(德裕山)에 이르러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는데, 끝내 그 마을 사람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의 연유를 고하자면 이와 같을 뿐입니다. [...]」<sup>13)</sup>

실록에 실린 이 같은 내용을 보면 유몽인은 이예순이 국청에서 진술한 공초에 근거해 『어우야담』의 이야기를 기술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1614년 당시 유몽인은 한성판윤(漢城判尹)의 직위에 있었는데, 추국청에 직접 참여했는지는 확인할 방도가 없다.<sup>14)</sup> 그렇지만 이야기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결말에서 유몽인 자신이 “그녀의 공초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공초의 내용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국청에 직접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우야담』에 실린 공초의 첫 번째 내용은 “6, 7세부터 문자를 조금 알았는데, 이때부터 이미 세상의 즐거움에는 마음이 없었으며, 15세에 시집을 갔으나 남녀간의 생업(生業)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지극한 도에만 마음을 두고 8, 9년 공력을 쌓자, 얻는 것이 있는 듯하였습니다.”<sup>15)</sup> 라는 것인데, 이는 실록 기사 중 밑줄친 부분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유몽인은 설사 국청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을지라도 공초의 내용은 어떤 경로로든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국청에 직접 참여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닐 것이다. 핵심은 이예순이란 문제적 인물을 바라보는 유몽인의 관점이 있다 할 것이다. 이때 무엇보다 단순히 옥사의 경위를 기록하는 입장이 아니라 전기적 형식을 빌어 이예순의 행적을 주인공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당시 양반 사족 간에 벌어진

13) CD롬 『조선왕조실록』 참고.

14) 『추안급국안(推案及鞠案)』에는 이예순의 이 옥사에 대한 기록이 빠져 있어 유몽인이 직접 국청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15) 『어우야담』, 209쪽.



음행으로 간주되었으며 서인 세력으로 이이첨과 대립하고 있던 이귀의 딸이라는 이유로 여러 정치적 풍파를 야기했다. 『광해군일기』를 보면 옥사가 일어난 지 5년 뒤인 1619년까지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거론되며, 이에순의 처벌과 관련해서 대신들에게 수의(收議)까지 지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6)</sup> 실록의 사관은 이에순의 옥사를 기록하고 나서 평하기를 “이때를 당하여 삼강(三綱)이 끊어졌다. 그러고도 나라가 되겠는가!”라고 개탄하고 있거니와, 이귀를 배척할 구실을 찾고 있던 이이첨(李爾瞻) 등 대북파에게 이 사건은 절호의 기회가 되었음직하다. 실제로 이 일로 인해 이귀는 복인 세력으로부터 심한 공격을 당하게 되며, 결국 관직을 삭탈당하고 도성 밖으로 축출되는 수모를 겪는다.

그런데 유몽인은 이러한 정치적 문제는 일체 배제하고 불교 수행에 몸을 바친 이에순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 시종일관 서사를 진행하고 있다.<sup>17)</sup> 이같이 서사를 진행하게 된 데에는 유몽인이 이에순의 행적 속에서 시대의 모순과 굴레에 저항해서 주체적으로 행동하고자 한 여성의 표상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게 읽히며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문제적 여성인 이에순의 입장에서 서사를 진행하여 주인공의 인물 형상을 강렬하게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 중 김자겸이 임종 시에 남긴 계송과 이에순이 옥중에 갇혀 지은 시는 이들의 불교에 대한 수행이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알려주는 구실을 하며, 공초의 형식을 차용해 제시한 이에순의 말은 이에순의 불교에 대한 진실된

16) 『광해군일기』를 보면 당시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이에순을 형물에 의거해 처형하라는 계사(啓辭)를 누차 올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이를 거절하고, 나중에는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할 것을 지시한다. 여기에서 판부사 심희수(沈喜壽)와 우의정 정창연(鄭昌衍)이 계사대로 처형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영의정 기자현(奇自獻)의 의견까지 듣고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이에순의 처형을 회피하다가 끝내는 사면을 지시한다. 옥사가 있는 지 5년이 지난 광해군 11년 12월에도 도승지 한찬남(韓縝男)이 올린 계사에서는 이에순이 음간(淫姦)을 하고도 지금까지 형벌을 피하고 있으니 옥에 가두고 율에 따라 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청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17) 이에순에 관한 이야기는 『어우야담』 외에 조경남(趙慶男, 1570-1641)의 『속잡록(續雜錄)』, 윤선거(尹宣舉, 1610-1669)의 『혼정편록(混定編錄)』 등 당대의 필기잡록 및 『연려실기술』에 전해지는데, 여기에서는 아버지 이귀나 광해군의 후궁인 김개시와 관련 지워 이에순의 옥사를 문제 삼고 있을 뿐 불교에 투신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근대 계몽기에 들어와 장지연(張志淵, 1864-1921)이 편찬한 『진취속고(震叢續攷)』의 ‘승니(僧尼)’ 조에 불도에 뛰어난 여성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신익철, 『광해군 시절 여승 이에순(李禮順)의 일생』(『문헌과해석』, 2004년 겨울호), 110-123쪽 참고.

열망과 가부장적 유교 사회에 대한 항변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예컨대 이예순이 유불도 삼교의 이치를 논하고 나서 “저는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 유학을 배우고자 해도 끝내 임금을 바르게 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베푸는 지극한 이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도는 조화의 권도를 흠쳐 크게 농환(弄幻)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불도를 배워 겨우 한 가닥을 터득하자 산림에 자취를 감추고서 위로는 성수(聖壽)를 축복하고 아래로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여 일생토록 그것을 저버리지 않고자 하였습니다.”<sup>18)</sup>는 발언에서 우리는 이예순이 불도에 입문하게 된 연유와 함께 그녀의 내면 심리 또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불교에 몸을 바친 이예순」 이야기에서 작자는 실제 벌어진 사건에 기반하여 서술하면서도 전기의 형식을 차용하고<sup>19)</sup>, 삽입시나 공초 등을 통해 사건이 함축하고 있는 행위의 진실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서사방식은 실제 벌어진 사건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보다는 그 사건의 이면에 감추어진 진실성을 포착하려는 작자의 주제의식 하에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이다. 이예순 이야기를 실록 기사와 대비해서 볼 때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기술함에 있어 유몽인의 남다른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 작자는 필기적 사실성에 기반해서 있었던 사실을 전달하면서도 문학적 진실성을 담기 위해 여러 문학적 변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에 토대를 둔 야담이 문학적 허구성을 담게 되는 동인으로 야담이 산출된 문학적 환경<sup>20)</sup> 외에 작자의 주제의식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이예순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고자 하는 필기적 입장과 문학적 진실성 내지 허구성을 강조하려는 야담적 입장은 기본적으로 상호 길항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작자가 문학적 진실성을 강하게 추구할 때에는 경우에

18) 『어우야담』, 210쪽.

19) 유몽인은 중인 유희경, 박지화, 노비 박인수, 여성 인물 이예순 등 주로 하층민이나 여성 인물을 입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전이라는 양식적 특성에 의거해 인물의 가치를 선양하기 위한 의도가 개재된 것으로 보인다. 김영미, 「기간(奇簡)과 유몽인의 산문」(태학사, 2008), 327쪽.

20) 김준형은 “실재한 역사 사실을 반영하되 그 내용의 일부를 그럴 듯하게 변형해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문학적 환경, 그것은 사실에 대한 유연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성에 토대를 둔 허구의 수사학을 가능케 할 동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 김준형, 「사실의 기록과 야담의 진실성」, 『동방한문학』 39집(동방한문학회, 2009), 64-65쪽.

따라 사실의 정확성 여부는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65화 「명기 황진이」는 이런 관점에서 주목된다. 이 이야기는 네 개의 일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가정(嘉靖) 초년 송도의 명창 진이(眞伊)는 여자로서 기개가 우뚝한 여자이다. 진이는 화담 서경덕이 당대의 고사(高士)라는 말을 듣고 그를 시험해보고자 하였다. 제자의 예를 갖추어 가르침을 청하자, 화담은 웃으며 받아들였다. 진이가 밤마다 화담을 유혹했으나 화담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② 진이가 재상가의 아들 이생원(李生員)과 단 둘이 금강산 유람을 떠났다. 금강산의 이곳저곳을 살살이 구경하였는데, 양식이 떨어지면 절에서 빌어먹고 어떤 때는 진이가 몸을 팔아 양식을 구하기도 했다. 어느 날 촌유(村儒) 십여 인이 계곡가에 연회를 베풀고 있었는데 진이가 노래를 부르니 청아한 음색이 계곡을 울렸다. 진이가 그들에게서 음식을 얻어 이생을 먹였다. 일 년 만에 거지꼴이 되어 집에 돌아오니 이웃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③ 선전관 이사종은 당대의 명창이었는데 개성을 지날 때 진이가 그 노래 소리를 알아보고 집으로 데리고 와 6년간 함께 살 것을 제의하였다. 3년은 황진이가, 그리고 3년은 이사종이 상대편 집안 식구까지 먹여살리고, 정한 기한이 끝나자 진이가 떠났다.

④ 진이가 죽을 때에 큰길가에 장사 자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임제가 평안도사가 되어 송도를 지나다가 그 무덤에 문제(文祭)를 하여 조정의 기평(讖評)을 받았다.<sup>21)</sup>

위의 네 가지 일화는 각각 독립된 이야기로 황진이에 관한 이러저러한 일화들을 담고 있다. 이들 일화는 모두 일상의 규율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내용인데, 이들 사이의 연관 관계를 암시하거나, 황진이의 파탈적 행위에 대한 작자의 부연설명은 찾아볼 수가 없다. 작자는 서사에 전혀 개입함이 없이 사건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단순히 기생 신분으로서의 갈등과 고뇌를 넘어서서 ‘중세 예교의 속박에 저항하는 주체적 형상’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각각의 일화들은 긴밀하게 연관되고 있다.

황진이에 관한 이야기는 당대 및 후대의 여러 문헌에 다양하게 등장하는데<sup>22)</sup>, 『어우야담』에서만큼 중세 예교에 저항하는 주체적 형상으로

21) 『어우야담』, 132-135쪽.

22)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의 『지봉유설(芝峯類說)』, 이덕형(李德河, 1566-1645)의 『송도기이(松都記異)』, 허균(許筠, 1569-1618)의 『성웅지소록(惺翁識小錄)』, 임방(任瑒, 1640-1724)의 『수촌만록(水村漫錄)』, 구수훈(具樹勳, 1685-1757)의 『이순록(二旬錄)』, 이극익(李肯翊, 1736-1806)의 『연리실기술(燃藜室記述)』,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청비록(淸脾錄)』, 김리재(金履載, 1767-1847)의 『중경지(中京誌)』, 서유영(徐有英, 1801-1874)의 『금계필담(錦溪筆談)』, 이원명(李源命, ?-?)의 『동야휘집(東野彙輯)』, 김택영(金澤榮, 1850-1927)의 『송양기구전(松陽耆舊傳)』, 작자 미상의 『해동기화(海東奇話)』·『기문총화(記聞叢話)』·『동야집사(東野輯史)』 등의 문헌에

그러진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들 문헌에 등장하는 황진이 이야기는 대개 ① 황진이의 탄생에 관한 설화(『송도기이』, 『성웅지소록』, 『연려실기술』, 『중경지』, 『송양기구전』, 『동야집사』), ② 황진이가 서경덕과 박연폭포, 그리고 자신을 송도삼절(松都三絶)이라 했다는 이야기(『지봉유설』, 『성웅지소록』, 『중경지』, 『청비록』, 『금계필담』, 『해동기화』), ③ 황진이의 시인으로서의 뛰어난 면모를 말한 이야기 - 소세양(蘇世讓, 1486-1562)과의 일화가 들어있기도 함 - (『수춘만록』, 『청비록』, 『송양기구전』), ④ 황진이의 빼어난 자태와 음악에 뛰어난 사실(『송도기이』, 『연려실기술』, 『청비록』), ⑤ 황진이가 산수 유람을 좋아한 사실(『성웅지소록』, 『연려실기술』, 『송양기구전』, 『해동기화』), ⑥ 황진이의 죽음과 유언(『송양기구전』, 『동야집사』) 등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들 여러 문헌에 기술된 황진이의 형상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개 미모와 재주가 뛰어난 '특이한 기녀'의 범주에 머물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이들 저자가 비범한 재주를 지닌 특이한 기녀로서 황진이를 바라본 데서 연유할 것이다.

이에 비해 『어우야담』에서는 기녀의 신분을 떠나 주체적으로 행동하며 중세 예교의 속박에 저항하는 문제적 여성으로 황진이의 인물 형상이 그려져 있다. 서경덕에게 찾아와 배움을 청하고 그 인품을 시험해보려 한 사실, 재상가의 아들과 일 년이 넘게 굶주려가며 금강산을 여행한 사실, 이사종과 경제적으로 평등한 6년간의 계약결혼 등은 모두 일상적 규율에서 벗어나 중세 예교의 속박에 저항하는 과격적 면모인 것이다.<sup>23)</sup> 『어우야담』에 서술된 황진이의 일화가 이처럼 과격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 데에는 작자 유몽인의 중세 예교의 속박에 대한 비판적 의식과 남녀평등의 여성관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 일화는 임제가 황진이의 묘에 글을 지어 제사를 지내다가 파직된 사실을 기술하였는데, 이는 작자 유몽인 또한 황진이의 행동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구실을 한다. 여타 필기잡록의 기사들과 대비해볼 때, 유몽인은 당대의 명기 황진이에 관한 술한 일화들 중에서 자신의 관점에 따라 일화를 선별 기술함으로써 이야기의 의미를 한층 깊이 있게 만들고,

황진이에 관한 기사가 실려 전한다.

23) 윤주필은 황진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네 개의 삽화가 모두 '기개가 우뚝하다(倜儻任俠)'는 의미로 수렴되는 사실에 주목하고 유몽인의 방외인적 의식세계와 관련지어 해명하고 있다. 윤주필, 『한국의 방외인문학』(집문당, 1999), 430-439쪽.

문학적 진실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중 이생원과 금강산 유람이나 이사종과의 계약결혼 등의 일화는 여타 필기잡록이나 후대의 야담집에 전혀 보이지 않는 내용이다. 재상가의 아들과의 일 년간에 걸친 금강산 여행과 경제적으로 동등한 육 년간의 계약결혼 등은 당대뿐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에도 쉽사리 행하기 힘든 일탈적 행위이다. 이처럼 과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당대에 전승되던 일화가 아니라 유몽인에 의해 지어진 허구적인 이야기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 이야기가 실재했던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작자의 순전한 허구인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사실의 정확성보다는 허구적일지라도 문학적 진실성을 담보하는 것을 중시한 작자의 문학적 관점은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어우야담』에 그려진 황진이의 모습은 너무나 비범해서 현실의 충위를 떠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황진이 이야기에는 구체적인 정황 묘사나 인물의 갈등, 내면 심리 등이 전혀 그려지지 않고 충격적인 사건들만 요약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황진이의 형상은 일상 현실의 규율을 초월해 있기에 조선후기에 등장하는 야담이 지닌 사실적인 시대 배경이나 생동감 있는 인정물태의 기술 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점은 이예순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이다. 야담 양식의 특성이 무엇보다 당대 일상의 삶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투영하고 있다고 볼 때에 이들 이야기는 당대 실재했던 사실을 배경으로 창작되었지만 야담에 보이는 일반적인 인물 형상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이들 이야기가 일반 민중의 세계관을 반영해 널리 구전되는 이야기를 창작의 원천으로 삼지 않은 점과 관련된다 할 것이다. 이예순 이야기는 작자가 직접 견문한 사실을 기록하였지만 민간에 구연될 만한 성격의 이야기로 볼 수는 없고, 황진이 이야기 또한 사대부 문인의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이지만 민중에게 회자될 만한 성격은 아니라고 본다.<sup>24)</sup> 『어우야담』에는 조선후기의 변모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당대 민중의 관심을 끌어 널리 전해졌음직한 야담적 성격의 이야기 또한 다수 보이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24) 여타 필기잡록에 보이지 않는 금강산 유람과 계약결혼에 관한 내용이 특히 그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 III. 『어우야담』의 초기 야담집으로서의 특성

다음은 이원명이 『동야휘집(東野彙輯)』을 편찬하면서 남긴 서문의 한 대목이다.

나는 긴 여름날 병을 조섭하면서 우연히 『어우야담』과 『기문총화(記聞叢話)』를 보게 되었는데,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대목이 자못 많았다. 다만 기억력이 쇠퇴해서 만의 하나도 기억할 수 없었기에 두 책 중에서 편폭이 길고 이야기가 길면서 고실(故實)을 증거할 만한 것을 추리고 다른 책 중에서 박식(博識)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함께 윤색해 기록해 두었다. [...] 책에 실린 것들은 인정물태(人情物態)가 손바닥 보듯 환하여 옛날에 소급하여 실상을 헤아려 풍속을 증험하고 세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25)</sup>

이원명이 눈이 번쩍 뜨인다고 긍정한 『어우야담』의 면모는 인정물태의 짙진한 묘사에 있다. 인정물태란 곧 생동하는 현실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행동과 감정의 다기한 양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어우야담』에서 인정물태가 손바닥 보듯 환히 그려진 이야기는 대부분 민간에 유전되는 이야기 중에서 취재한 것이다. 그 중에는 단순히 통속적인 웃음을 유발하는 소화(笑話)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사대부 사회의 숨겨진 일화도 들어 있다. 여기에서는 17세기를 전후한 당시 격변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이야기에 한정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 ① 치부에 대한 관심, ② 신분 체제의 이완과 변동, ③ 시정 주변의 세태 등 세 가지 유형이다. 이들 유형의 이야기는 대개 조선후기의 변모해가는 특수한 역사 상황을 반영하여 성립된 것으로 여겨지며, 그만큼 야담적 색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 치부에 대한 관심

『어우야담』에서 치부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는 362화 「울공금 팔자」, 363화 「역관 이화종의 치부 내력」, 364화 「천인 신석산의 치부 내력」, 365화 「화포장의 횡재」, 366화 「서얼 민산의 치부 내력」, 367화 「무사와

25) 이원명, 「東野彙輯序」. “余於長夏調疴, 偶閱『於野談』·『記聞叢話』, 頗多開眼處. 惟是記性衰耗, 無以領略萬一, 遂就兩書, 撮其篇鉅話長, 堪證故實者, 旁及他書之可資談洽者, 并修潤載錄. [...] 而第書中所載, 人情物態, 瞭如指掌, 可以溯古摭實, 驗謠俗而裨世教.”

환혼석」, 415화 「바닷가 땅을 개간하려다 실패한 호남 선비」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올공금 팔자」는 장사하려 갔다가 평양 기생에게 빠져 재산을 탕진한 장사치가 기생이 던져준 올공금으로 치부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첫머리에서 “속담에 ‘올공금 팔자’라는 말이 있다. 올공금이란 장구의 용두쇠이고, 팔자란 음양사주를 말한다.”<sup>26)</sup>고 하여 속담의 유래와 관련된 치부담을 제시했는데, 치부의 계기가 그저 기생이 던져준 올공금이 금보다 열 배나 비싼 오금(烏金)이었다는 것으로 다분히 민담적 색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역관 이화종의 치부 내력」과 「천인 신석산의 치부 내력」은 역관 이화종과 천인 신석산이 각기 중국 사행 도중에 얻은 기이한 보화를 연경의 시장에서 고가를 받고 팔아 치부하는 내용이다. 이들 이야기에서도 치부의 계기는 여전히 비현실적인 수단—화룡(火龍)의 뼈에 있는 구슬과 뱀의 뿔—에 의지하지만 연행 무역을 통해 거부가 되는 당시의 시대상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화포장의 횡재」 또한 연행에 참여한 화포장이 거부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연행 중에 얻은 보화를 연경에서 팔아 치부하는 앞의 이야기와는 달리 수로(水路)로 조천하면서 무인도에 버려진 화포장이 그곳에서 보화를 얻어 치부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무사와 환혼석」은 연행에 참여한 무사가 고향인 아산현에서 얻은 환혼석(還魂石)이 보배라는 것을 호상(胡商)을 통해 알고는 팔려다가 실수로 거금을 얻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이야기다. 이 역시 비현실적인 설정이지만 연행 무역을 통해 치부하려다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 네 편의 이야기는 세부적인 줄거리에서 얼마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모두 연행을 통해 치부하게 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비슷한 구조의 여러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을 통해 당시 연행 무역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음을 말해준다 할 것이다.

한편 「서얼 민산의 치부 내력」과 「바닷가 땅을 개간하려다 실패한 호남 선비」는 앞의 이야기들과는 색다른 치부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서얼 민산의 치부 내력」의 서두는 “민산(閔山)이란 이는 나의 외가쪽 서얼로, 시정에 살면서 늘 종루 거리에서 한가하게 노닐었다.”<sup>27)</sup>는 말로 시작해 작자가 잘 이는 서얼 출신의 한량매가 주인공으로

26) 『어우야담』, 572쪽.

27) 『어우야담』, 579쪽.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신원이 확실하게 밝혀진 데 비해 그가 치부하는 과정은 다소 황당하게 그려지고 있다. 즉 종로 누각에서 만난 사람의 망태기에 든 것이 황금임을 알고는 만 필의 베를 빌려 교환하여 그 이득으로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작자는 “지금 종루 거리에서 난전(亂塵)을 금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끝맺고 있다. 이는 당시 종로 거리의 교역을 통해서도 거부가 될 수 있을 만큼 상행위가 발달했으며, 그만큼 난전이 성행하고 있다는 현실을 증언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닷가 땅을 개간하려다 실패한 호남 선비」 또한 당대의 경제 상황과 치부에 대한 관심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호남에 수만 석을 수확하는 부유한 선비가 있었는데, 땅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처지를 부끄럽게 여겼다.

② 선비는 땅을 모두 팔아 포단(布段) 백만 필을 마련해 황해도 황주와 봉산 사이의 갈대밭 수백 리를 사들였다.

③ 바닷가에 화려한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고 제방을 쌓아 농사를 지었는데, 여름 장맛비에 제방이 무너져 벼가 물에 잠기고 바다와 한 물줄기를 이루었다.

④ 선비는 호기롭게 웃으며 재산을 탕진한 것은 분명하지만 천하의 장관을 구경했다고 말했다.

⑤ 사람의 욕심이 만족하여 그칠 줄을 모르는 예라 할 것이다.<sup>28)</sup>

이 이야기 또한 앞의 민산 이야기처럼 치부와 관련된 구체적인 묘사는 보이지 않지만 두 가지 점에서 흥미할 대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바닷가 땅을 개간하여 대규모의 광작(廣作)을 시도한 점이다. 조선 후기 들어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함께 광작을 통해 치부하는 과정을 담은 야담이 널리 성행하게 되었는데<sup>29)</sup>, 이 이야기에는 비록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그려졌지만 바닷가 땅의 개간을 통한 대규모 광작의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둘째, 부유한 선비가 자신의 부를 바탕으로 과거를 통해 입신출세 하려는 사대부 본연의 소임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인공에 대해서 작자는 “호남에 호기로운 선비 아무개가 있었는데, 도량이 확 트였고 생업의 기반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만

28) 『어우야담』, 650-651쪽.

29) 『이조환문단편집』 권1, ‘부(富)’에 실린 광작에 관한 여러 이야기가 이를 잘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선비는 사대부의 명분에서 벗어나 직접 농사를 통해 치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작자는 평결에서, “이는 욕심이 지나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례이다.”라고 하여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광작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양반층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시대적 분위기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하겠다.

이밖에 360화 「윤현의 이재술」에서는 윤현(尹鉉)이 호조판서로 있을 때에 검약하여 재정을 늘린 이야기와 집안을 다스리면서 치부하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목화를 매점매석하여 수만 석의 곡식을 사는 행위가 들어 있다. 연행 무역, 광작, 매점매석은 후대 야담집에서 치부담의 전형적인 소재로 등장하는 것들이다. 이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17세기를 전후한 당시 이미 이러한 사회적 변모가 일어나고 있었으며, 조선후기의 이러한 경제적 변모를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는 작자의 시선을 감지할 수 있다.

## 2. 신분 체제의 이완과 변동

『어우야담』에는 신분 체제의 모순과 이완된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가 여러 편 수록되어 있는데 그 대다수는 서얼계층에 관한 것이다. 342화 「불선의 응보」와 343화 「재앙은 하늘이 되돌려 주는 법」은 강문우(姜文祐)와 정번(鄭蕃)이 서얼 출신임을 속이고 과거에 합격했다가 신분이 밝혀지면서 삭과(削科)되었는데, 이들의 삭과를 주도한 인물들이 재앙을 받는다는 줄거리이다. 400화 「기지로 공훈을 얻은 선비」와 522화 「서얼 구현휘와 중종반정」은 장안의 왕패로 지내다가 중종반정에 공을 세워 일약 큰 공훈을 받게 되는 구현휘(具亥暉)에 관한 서로 다른 줄거리의 이야기이고<sup>30)</sup>, 398화 「지모가 비상한 유자광」은 중종 연간에 사화를 주도한 유자광에 관한 이야기이다. 유몽인은 이들 부정적 인물에 대한 서술에 있어서도 그들이 지닌 나름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서사를 진행하고 있다.<sup>31)</sup> 419화 「재상이 서너 진복의 일생」은

30) 이 중 522화 「서얼 구현휘와 중종반정」은 『만종재본』에는 빠져 있고 『청구패설본』, 『일사본』, 『야승본』의 세 필사본에 실려 있는 것이다. 『만종재본』에는 누락되어 있으면서 여타 이본에 전하는 『어우야담』의 이야기 38화는 신익철·이형대·조유희·노영미 공역, 『어우야담』의 보유편에 수록되어 있다.

31) 특히 유자광에 관한 이야기는 여타 필기잡록에서 대부분 전형적인 악인으로 기술하고

재상가의 서녀로 태어나 기구한 삶을 살게 된 진복의 일생을 다룬 이야기이고, 559화 「차팔제의 사기술」은 차천로(車天輅)가 함경도로 유배 갔을 때 관비와 관계하여 낳은 차팔제(車八蹄)란 인물의 사기행각을 다룬 색다른 이야기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서얼을 다룬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유몽인은 서얼 신분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부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들 계층에 대해 동정적인 시선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대개 서얼 출신이면서 정치적 기회를 얻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거나 능력은 있지만 부당한 처우를 받는 인물, 혹은 서얼로 태어났기에 기구한 삶을 살게 되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들 이야기는 서얼이라는 절름발이 양반 신분에 대한 작자의 동정은 보이지만 당시 신분 체제의 이완이나 변동을 반영한 이야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해 60화 「노비 반석평의 총명과 충성」과 62화 「녹림당 김의동의 세공」은 노비 출신으로 신분을 속이거나 도망쳐 출세를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이다. 도망 노비에 관한 이야기는 이 두 편이 실려 있을 뿐이지만, 이들 이야기는 신분 체제의 이완과 관련해서 흥미해볼 만하다. 이 중 반석평(潘碩浬) 이야기는 종종 연간의 명재상으로 유명했던 반석평이 자신이 노비 출신임을 밝힌 실화를 기록한 것이다.<sup>32)</sup> 반석평이 주인집 재상의 도움으로 타고난 비범한 능력을 펼칠 수 있었던데 비해, 김의동(金義童)은 주인집에서 도망해서 군도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체적이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의동 이야기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김의동은 신(愼)씨 집의 노복으로 고생을 견디지 못하고 19세에 달아났다.

있는데 비해 유몽인은 그의 재주와 지모가 매우 비상한 점에 주목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서 유영대는 민중들의 세계관을 반영한 설화에서 유자광은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은 비범한 인물로 전승되고 있음을 고찰한 바 있다. 유영대, 「설화와 신분의 문제 - 유자광 전승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16집 (민족문화연구소, 1982). 김영미는 앞의 책 4장 「『어우야담』의 일화 운용 방식」에서 '부정 관념의 긍정화'란 서술방식의 실례로 검토한 바 있다.

32) 반석평이 종종 연간의 명재상이란 사실은 『국조보감』, 『기묘록보유』, 『연려실기술』, 『성호사설』 등에 보이며, 팔도의 관찰사를 모두 지낸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여러 문헌에 비해 『어우야담』의 이야기가 가장 자세하다. 그 개요는, 재상집 노비였던 반석평이 주인 재상의 배려로 글을 배우고 신분을 감추었다가 과거에 급제해 재상의 반열에까지 올랐는데, 재상이 죽고 주인집 자식들이 곤궁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자식들에게 절을 하고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법에 따라 처벌받기를 청원했으나 조정에서 의롭게 여겨 예전처럼 중용했다는 것이다. 유몽인은 결말의 평결 부분에서 신분에 구애되지 않고 인재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석평과 주인집 재상의 처사를 칭송하였다.

- ② 신씨 집에서 노비 업산(業山)을 시켜 영남의 세공을 거두어오도록 했다.
- ③ 업산이 조령에서 성대한 차림의 관인을 만났는데 생김새가 김의동과 흡사해 의아하게 여겼다. 관인은 군졸을 시켜 업산을 붙잡아갔다.
- ④ 산골짜기로 몇 십리를 가자 산채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김의동이 그들의 우두머리였다.
- ⑤ 김의동은 업산을 매우 후하게 대우해주고, 출세하게 된 연유를 묻는 업산에게 자신이 군도의 우두머리임을 말하였다.
- ⑥ 김의동은 업산에게 비단 10필을 주고, 40필을 10년 동안의 세공으로 주인집에 전하게 하였다. 주인집은 이로 인해 졸지에 부자가 되었다.<sup>33)</sup>

군도의 우두머리가 된 도망 노비가 주인집에 세공을 바치게 된 사건을 기술한 것이다. 주인집의 노비 업산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기에 군도의 활약상이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있지는 않다. 아울러 도망간 노비를 붙잡고자 하는 추노(推奴)의 행위가 등장하지도 않았다. 다만 업산이 자신과 같은 신분의 김의동이 대관(大官)이 된 것을 부러워하며 연유를 묻자, 김의동이 군도의 우두머리가 되었음을 우의적으로 말하고 있을 뿐이다.<sup>34)</sup> 사실 노비인 업산이 “최포향(崔蒲鄉)의 정장(亭長)이었는데 녹림(綠林) 현감으로 옮겼다가 황지(潢池) 부사가 되었다.”는 김의동의 우언(寓言)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도 의문이다. 그렇지만 업산은 김의동의 말 속에 담긴 우언적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도 산채의 호사스런 모습과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군도의 우두머리임을 직감했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로운 아이[義童]’라는 뜻을 지닌 김의동의 이름 또한 우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 굶주린 백성이 도적질을 해서 생을 영위함은 부끄럽지 않은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이다.<sup>35)</sup> 요컨대 ‘녹림당 김의동의

33) 『어우야담』, 128-130쪽.

34) 김의동은 업산에게 “처음에는 최포향(崔蒲鄉)의 정장(亭長)이었는데 녹림(綠林) 현감으로 옮겼다가 황지(潢池) 부사로 승진했소.”(『어우야담』, 129쪽)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최포향, 녹림, 황지는 가공으로 설정된 지명이다. 최포향(崔蒲鄉)은 미상이나, 녹림은 도둑의 소굴을 일컫는 말이고, 황지는 ‘농병황지(弄兵潢池)’라고도 하여 바닷가 먼 변방의 굶주린 백성들이 황지에서 도적떼가 됨을 말한다. 한 선제(漢宣帝) 때에 발해(渤海)에서 농민의 반란이 일어나 황제가 걱정을 하자, 공수(龔遂)가 “백성들이 배고픔과 추위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관원들이 제대로 보살피주지 않기 때문에, 폐하의 적자들이 황지 사이에서 폐하의 무기를 몰래 훔쳐 들고서 한번 장난을 쳐본 것일 뿐입니다.”(陛下下赤子盜弄陛下之兵於潢池中耳)라고 말했던 데서 유래한다. 『한서』 권89 「龔遂傳」.

35) 유평인은 먹고살 길 없는 백성들이 도적떼로 내몰리는 현실을 목도하고 이들의 행위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438화 「굶주린 도적」은 1619년(광해군 11) 연간에

세공」은 도망 노비가 군도의 우두머리가 되어 의적을 자처하며 행동하는 17세기 전후 사회상의 단면을 포착하고 있는 바, 이는 후일 야담의 주요 제재가 되었던 군도담(群盜談)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 3. 시정 주변의 세대

앞에서 살펴본 이야기들을 통해 『어우야담』이 저술된 17세기를 전후한 당시 치부에 대한 관심과 신분 체제의 동요가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모에 따라 시정 주변에서 활동하는 왈짜패나 사기꾼과 같은 인간 유형이 빈번하게 등장하며 이전과는 다른 세대 또한 출현하게 된다. 인정물태를 꺾진하게 묘사한 것으로 평가받는 『어우야담』에는 이처럼 변화된 시정 주변의 세대를 반영한 이야기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먼저 당시 서울 장안의 왈짜패의 모습을 다른 이야기 한 편을 보도록 하자.

① 장안에서 화류계에서 호협하게 노니는 자를 왈짜라고 부른다.

② 선비 안세현이 최고의 왈짜였는데, 여러 서생들이 산사에서 독서하다가 그에게 왈짜의 법도를 가르쳐달라고 하였다.

③ 안세현이 이생과 장생을 보고는 걸음걸이와 옷매무새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바로잡아주었다.

④ 이생과 장생은 창녀 향이의 집에 간 안세현에게 측간의 오물을 묻힌 장대를 방으로 들이밀어 휘저었다.

⑤ 뒤쫓아 나갔다 잡지 못하고 돌아온 안세현은 술과 음식을 모두 토하고 애꾸눈 이가의 짓으로 여기었다.<sup>36)</sup>

장안 왈짜패들의 허랑방탕한 생활의 한 단면을 가볍게 묘사한 이야기이다. 독서하러 산사에 모인 양반 선비들이 안세현을 사부로 삼아 왈짜의 법도에 대해 배우려고 하자, 안세현은 “이 아무개 장 아무개야, 이리 와보거라. 너희들 관을 비뚤게 쓰고 허리띠를 느슨하게 맬 것이며, 걸음걸이는 뼈뺏하게 하고 옷 뒤편이 필력이라도 해보거라.”라고 한다. 선비들이

---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 군도들이 예를 갖춰 재물을 탈취한 사건을 기술한 것인데, 여기에서 작자는 “대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곤궁해지자 양민들이 서로 모여 도적이 되었던 까닭에 사람은 해치지 않고 재물만 취했던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이 다음에 굶주린 도적이 힘이 없어서 행상에게 오히려 쫓겨 달아난 일화를 덧붙이고 나서 “이 또한 가엾은 일이다.”라고 동정을 표하고 있다.

36) 「장안의 왈짜 안세현」, 『어우야담』, 154-155쪽.

모여 화류계의 멋쟁이 흥내를 내며 불량스러운(?) 차림새와 걸음걸이를 배우는 장면이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어설픈 멋부리는 행위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안세헌의 핀잔을 받은 이생과 장생이 그에게 복수하는 장면 역시 사춘기 청년들의 치기가 느껴지는 행위이다. 근엄하기만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양반 선비 세계의 이면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작자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우려하거나 개탄하는 말이 전혀 없이 당시 인정세태의 일면을 가감 없이 제시하고 있다.

80화 「장안의 화류계를 좌우한 김칭」 역시 기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율짜에 관한 이야기인데, 죽음에 임박한 김칭에게 그 비법에 대해 묻자 그는 “중처럼 굴라.”는 한마디를 남긴다. 작자는 명사가 되는 데에도 이러한 술수가 행해진다는 말을 한마디 덧붙임으로써 이 이야기가 당시 양반 선비들의 출세욕을 풍자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말하였다. 이 밖에 75화 「기생 가지의 가벼운 몸가짐」은 장안 최고의 기녀인 가지가 시체를 임검(臨檢)하는 오작인(件作人)을 무시하면서 재화를 탐내다가 그에게 봉변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당시 기생들이 절개 없이 재화를 탐하는 세태를 풍자한 것이다.

시정을 중심으로 상행위가 활발해지고 거래가 복잡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에 따라 사기행위도 이전에 비해 빈번해지기 마련이다. 416화 「보성 사람의 사기술」과 558화 「차팔제의 사기술」은 이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만한 이야기이다. 이 중 「보성 사람의 사기술」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양태(洋汰)라는 이름의 보성 사람이 서울 저잣거리에서 돈을 빌리려 했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지라 빌릴 수가 없었다.

② 그는 저자의 부유한 상인으로부터 이자를 배로 갚겠다고 하면서 득녕(得寧) 별관의 200석 지기 논을 담보로 무명 천 필을 빌렸다.

③ 돈을 갚지 않아 상인이 보성으로 내려가 찾으니, 그곳 사람들이 “득녕은 바다 이름이고, 양태는 생선 이름이다.”라면서 배를 움켜쥐고 웃었다.

④ 여불위·양옹·왕통·왕망·궁예 등이 경전을 모방해 지은 것 또한 이 같은 행위이다.<sup>37)</sup>

보성 땅의 바다 이름과 생선 이름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이 이야기는 사기의 내용이 너무나 황당하여 다분히 소화(笑話)적인

37) 『어우야담』, 651-652쪽.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러면서 유몽인은 경전을 모방해 한 시대를 속인 인물들을 열거하고 이들의 행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라고 풍자하였다. 평결에 해당됨직한 이 말을 통해 보건대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당시에 실재했던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속인 인물들을 비판하기 위해 지어낸 순전한 허구일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차팔제의 사기술」에서의 사기행각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차천로가 영북(嶺北, 마천령 이북 지방)에 유배 갔을 때 관비에게서 낳았다고 하는 차팔제는 문권(文券)을 위조해 사기치는 것으로 호구책을 삼았는데, 경성에 와서 과천에 있다는 석불과 석산 두 종의 이름을 대고 시장 사람을 속인 것이다.

두 이야기는 서울의 상인들이 모르는 지역의 이름을 논이나 사람으로 둔갑시켜 사기를 친 점이 똑같다. 그리고 사기 친 이들은 보성과 마천령 이북, 즉 국토의 최남단과 최북단 출신의 인물들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하나의 과감한 상상을 해본다. 즉, 당시 한양 땅으로 각처의 인물들이 활발하게 유입되었으며 먹고 살 길이 막연한 이들의 사기행각을 반영하여 이러한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분히 비약이 있는 억측이지만, 기실 이야기란 대부분 실제의 사실을 모태로 하면서 이런저런 변용이 가해져 전해진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능한 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419화 「재상이 서녀 진복의 일생」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이야기는 시정 주변의 세태만을 다루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에서 시정의 분위기가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다소 긴 이야기로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재상가의 서녀(庶女) 진복은 무당의 점괘에 따라 어미와 떨어져 직조리(織組里) 부유한 노파의 집에 맡겨져 성장한다.

② 노파는 아름답게 성장한 진복을 친딸처럼 사랑하여 후사로 삼아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려 한다.

③ 노파의 친척이 이 소식을 듣고 노하여 승정원의 젊은 문관이 첩으로 삼고자 한다면서 진복을 유혹한다.

④ 진복은 계속되는 유혹에 넘어가 승정원의 문관이 보냈다는 말에 올라탄다. 노파의 친척은 사헌부로 데려가 먹재(墨屎)로 하여금 진복을 강간하게 하고는 달아난다.

⑤ 그 소문을 들은 재상집에서는 부너지간의 정리를 끊고 노파에게 진복을 주어버린다.

- ⑥ 자포자기한 진복은 음녀가 되어 평생 결혼하지 못하고 천하게 살다가 죽는다.
- ⑦ 진복의 여동생은 무장에게 시집을 가 재상집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진복은 배척받아 모임에 참여할 수 없었다.
- ⑧ 진복이 처신을 잘못된 것은 마땅하지만 사람의 시기심이 이처럼 무서우니 조심해야 할 것이다.<sup>38)</sup>

이 이야기는 아마도 당시에 구전되는 실화를 듣고 기록한 것으로 여겨진다. 재상가의 서녀로 태어나 기구한 삶을 살게 된 진복의 일생이 짧은 편폭 속에 기술되었는데, 그 안에 당시 시정세대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부모와 떨어져 살아가야 한다는 점괘 한마디에 따라 측실에게서 낳은 딸을 다른 곳에 주어버리고, 훗날 진복이 몸을 망치자 부너지간의 정리를 끊은 재상의 냉혹한 처사. 딸을 사랑하면서도 재상의 처사에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던 진복의 어미와 그와 친분이 있던 부유한 노파. 진복을 파멸로 몰고 간 노파의 친척과 그와 결탁해 진복의 몸을 망치는 사헌부의 먹자. 이들 인물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선명히 그려지지 않고 갈등의 전개 또한 명확히 제시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다. 그렇지만 서녀로 태어나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자신의 앞날에 불안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 내면의 갈등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기술되면서 진복 주변인물들은 나름대로 생동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복이 유혹에 넘어가 몸을 망치게 되는 부분은 이야기의 정점을 이루는데, 배경이 되는 사헌부—당시 시정의 풍속과 관원에 대한 감찰을 담당해서 기강이 엄정하기로 유명한 사헌부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가 벌어졌다는 점 또한 충격적이다—의 풍경이나 진복의 심리 묘사가 탁월하여 소설적 필치를 느끼게 한다.<sup>39)</sup>

38) 『어우야담』, 655-658쪽.

39) 그 중 한 대목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진복은 새로 화장을 한 뒤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저녁을 틈타 밖으로 나가 가볍게 말에 올라탔다. 구불구불한 거리를 몇 구비 지나 사동팔달의 거리를 내달려 어느 한 곳에 이르니, 높다란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널판장 앞에서 말을 내리니, 구변 좋은 자가 그녀를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큰 뜰을 지나자 높다란 집과 큰 연못이 나타났다. 푸른 연꽃이 붉은 난간을 빙 둘러 피어 있었으며 텅 비어 인적이ra곤 없었다. 집 안에는 병풍과 장막이 빙 둘러져 있었는데, 구변 좋은 자가 그녀를 이끌어 병풍 속에 앉혔다. 조금 있으니 긴 수염이 덩수룩하게 나고 배웃에 맨발 차림인 한 사람이 들어와 진복을 꺼안고서 마음껏 못된 짓을 하였다. 그리고는 이내 그녀를 버려둔 채 달아나버렸는데, 단 한 사람의 시중꾼도 없었다. 구변 좋은 자를 불렀으나, 그 또한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진복은 깊은 규방의 처자로 귀하게 성장하여 뜰을 나서본 적이 없었는데, 장안의 천 갈래 만 갈래 지나온 저잣거리의 길을 어찌 알 수 있으리오. 물어보려 해도 사람이 없고, 돌아가려 해도 길을 알

요컨대 이 이야기는 서너로 태어나 부모와 떨어져 살며 앞날에 불안감을 느끼는 한 젊은 처녀의 심리를 중심으로 당시 세태의 냉혹한 일면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라 하겠다. 진복 이야기 다음에 수록된 420화 「남녀 간의 정욕」 또한 이러한 시정세태의 일면을 반영한 이야기로, 사대부가의 미모의 부인에게 반한 장사치가 유모를 매수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다가 발각되어 죽임을 당한다는 줄거리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세 사회 속에서 신분의 벽에 가로막힌 한 평민 사내의 빛나간 성적 욕망과 그 비극적 파멸을 생생하게 접할 수가 있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어우야담』이 전대 필기잡록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야담으로의 변모를 성취할 수 있었던 동인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초기 야담집으로서의 특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필기와 야담의 차이점으로 기록의 사실성과 문학적 진실성 내지는 허구성에 주목하고, 『어우야담』의 몇몇 작품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유몽인은 이예순과 황진이 같은 문제적 여성들을 기록으로 남김에 있어 이들의 행위가 지니는 진실성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기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몽인은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실이 지닌 내면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서사 정신을 지녔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문학적 변용을 활용하였다. 무엇보다 사실에 담긴 진실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실의 정확성을 넘어서 문학적 허구 또한 과감하게 지향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야말로 필기의 사실성을 넘어 야담의 진실성을 개척할 수 있었던 근본 동인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서사 정신은 아마도 방달(放達)한 기질의 문장가로 중세 예교의 강박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애정을 지녔던 유몽인의 세계관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민간의 세태에 주목하고 민간의 속담과 구전되는 이야기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글쓰기에 반영하고자 한 유몽인 특유의 문학관 또한 필기에서 야담으로의 변모를 개척한 동인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수 없는지라 길가에서 방황하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어우야담』, 657쪽.



‘야담’이란 말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며, 야담은 조선후기의 특수한 정황을 반영하여 탄생한 역사적 장르이다. 따라서 야담의 장르적 특성을 명확히 규정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논자에 따라 이에 대한 정의 및 여타 서사양식과의 관계 규정은 다양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40)</sup> 필자는 야담 일반의 서사적 특성에 대해 논할 만큼 이 분야에 깊은 식견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이 글 또한 이러한 문제 일반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은 아니다. 조선후기 서사문학사의 전개 양상 속에서 야담이 차지하는 위상을 염두에 두고 『어우야담』의 성격을 논하는 일은 차후의 과제로 남는다.

---

40) 이에 대해서는 이강욱의 앞의 책 「야담의 갈래」 장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어 많은 참고가 된다.

## 참 고 문 헌

- 具樹勳, 『二句錄』.
- 金履載, 『中京誌』.
- 金澤榮, 『崧陽耆舊傳』.
- 徐有英, 『錦溪筆談』.
- 尹宣舉, 『混定編錄』.
- 安璫, 『己卯錄補遺』.
- 李德洞, 『松都記異』.
- 李肯翊, 『燃藜室記述』.
- 李德懋, 『清脾錄』.
- 李晬光, 『芝峯類設』.
- 李源命, 『東野彙輯』.
- 李瀟, 『星湖塞說』.
- 任瑒, 『水村漫錄』.
- 張志淵, 『震彙續攷』.
- 趙慶男, 『續雜錄』.
- 許筠, 『惺翁識小錄』.
- 『海東奇話』.
- 『記聞叢話』.
- 『東野輯史』.
- 『國朝寶鑑』.
- 『推案及鞫案』.
- 『조선왕조실록』, CD롬.
- 柳夢寅, 『於于集』, 경문사영인본, 1979.
- 『於于野譚』 靑邱稗說本; 野乘本; 가람본; 李樹鳳本.
- 유몽인 저, 신익철·이형대·조용희·노영미 옮김, 『어우야담』. 파주: 돌베개, 2006.
- 김상조, 「필기·패설·야담」. 『야담문학연구의 현 단계』 1권, 서울: 보고사, 2001, 182-205쪽.
- 김영미, 『기간(奇簡)과 유몽인의 산문』. 파주: 태학사, 2008, 327쪽.
- 김준형, 「야담의 문학적 전통과 독자적 갈래로의 변천」. 『고소설연구』 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64-65쪽.
- \_\_\_\_\_, 「15~16세기 서사문학사에서 갈래간 넘나들의 양상과 그 의미-필기·패설·전기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24집, 민족문학사학회, 2004, 160-187쪽.

- \_\_\_\_\_, 「사실의 기록과 야담의 진실성」. 『동방한문학』 39집, 동방한문학회, 2009, 64-65쪽.
- 노영미, 「『於野譚』 研究: 이본 고찰과 서사적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14-54쪽.
- 신상필, 「필기의 서사화 양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9-25쪽.
- 신익철, 「유몽인의 문학과 시문의 표현수법의 특징」,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8-44쪽.
- \_\_\_\_\_, 「『어우야담』의 창작 정신과 서사방식」. 『고전문학연구』 12집, 고전문학회, 1997, 251-280쪽.
- \_\_\_\_\_, 「광해군 시절 여승 李禮順의 일생」. 『문헌과 해석』 겨울호, 2004, 110-123쪽.
- 신익철·이형대, 「『어우야담』의 비판적 정보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29집, 2002, 355-385쪽.
- 이강옥, 『한국야담연구』. 서울: 돌베개, 2006, 13-68쪽.
- 유영대, 「설화와 신분의 문제 - 유자광 전승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16집, 민족문화연구소, 1982, 222-239쪽.
- 윤주필, 『한국의 방외인문학』. 서울: 집문당, 1999, 430-439쪽.
- 임완혁, 「조선전기 필기의 전통과 패설」. 『대동한문학』 24집, 대동한문학회, 2006, 92-103쪽.
- \_\_\_\_\_, 「필기에서 사실의 의미」. 『동방한문학』 29집, 동방한문학회, 2009, 96-101쪽.
- 임형택, 「18·19세기 이야기문과 소설의 발달」. 『한국학논집』 2집, 계명대학교, 1975, 293-298쪽.
- \_\_\_\_\_, 「한문단편 형성과정에서의 강담사」. 『한국소설담구』. 서울: 일조각, 1978, 274-278쪽.
- \_\_\_\_\_, 『한국문학사의 시각』. 파주: 창작과비평사, 1984, 359-418쪽.

## 국 문 요 약

『어우야담』은 필기·패설·야담의 세 가지 서사양식이 뒤섞여 있는 초기 야담집으로, 필기잡록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야담으로서의 변모를 성취한 저술이다. 저자 유몽인은 실제의 사실을 직서하지 않고 『장자』의 우언적 수법을 활용하여, 필기의 사실성을 넘어 야담의 진실성을 개척할 수 있었다. 유몽인은 실재했던 사건 내면에 담긴 의미를 중시하였고, 이를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활용하였다. 『어우야담』은 17세기를 전후한 당시 격변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성립되었으며, 그 속에는 야담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는 작품들이 상당수 들어 있다. 그 중 ① 치부에 대한 관심, ② 신분 체제의 이완과 변동, ③ 시정 주변의 세태의 세 가지 유형이 주목된다. 필기에서 야담으로의 변모는 중세 예교의 강박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애정을 지녔던 유몽인의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함께 우언적 수법으로 당시 세태를 풍자하고자 한 유몽인 특유의 문학관 또한 필기에서 야담으로의 변모를 개척한 동인의 하나로 중시해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10. 7. 5.

**수정일** 2010. 8. 5.

**게재 확정일** 2010. 8. 12.

**주제어(keyword)** 어우야담(*Eou-yadam*), 유몽인(*Ryu-mongin*), 필기(*pilgi*), 패설(*paeseol*), 야담(*yadam*), 장자(*Zhuangzi*), 우언(*fable*)